양효진(현대건설) VS 하준임(도로공사)

"신인왕은 내 것"

'07-'08 NH농협 V LEAGUE

"준임이도 잘하지만 꼭 제가 받고 싶어요"(양효진) "득점은 효진이가 많지만 서브는 자신있어요"(하준임)

여자프로배구 신인왕 후보가 장신 센터 양효진(18·현대건설)과 라이트 하준임(18·한국도로공사)간 대결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각 팀마다 1~2명의 신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확보한 올해 여자부 신인왕 경쟁은 어느 시즌보다 뜨거웠지만 양효진과 하준임이 빼어났다.

둘의 공통점은 좀처럼 나오기 힘든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

양효진은 국내 여자 선수 중 가장 큰 키(190cm)에 점프력도 뛰어나다. 189cm의 하준임도 역대 국내 여자 라이트 가운데 가장 큰 키에다 보기 드문 왼손잡이라는 장점을 갖췄다.

프로에 와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하준임은 고등학교 때 부족했던 근력을 보강해 공을 때리는 힘이 좋아졌고 양효진은 성인 무대의 수싸움에 눈을 떠가면서 블로킹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됐다.

경험을 쌓고 힘과 스피드를 보완한다면 곧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하는 간판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똑같다.

성적을 두고 보면 둘은 막상막하. 양효진이 27경기에서 296점을 올려 신인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고 하준임이 281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양효진이 블로킹에서 세트당 0.575개로 전체 3위에 올라 있는 반면 하준임은 서브에서 세트당 0.225개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3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다재다능한 배구 감각으로 '신인왕 0순위'로 주목을 받았던 전체 1순위 배유나(GS칼텍스)는 정대영, 김민지 등의 그늘에 가려 팀내 비중을 찾지 못해 실력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 양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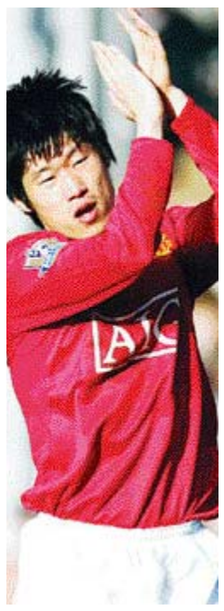
190㎝ 국내 최장신

27경기서 296득점

■ 하준임

왼손잡이 右공격수

281득점으로 추격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

박지성 구단 인터뷰서 밝혀

"맨유, 챔스리그 우승 자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맨유의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자신했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둔 맨유의 박지성은 12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한국어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잉글랜드 팀과 맞붙는다면 잉글랜드 축구계와 팬들에게 모두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겐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에 집중한다면 어떤 팀이라도 이길 수 있다"며 맨유의 저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는 맨유를 비롯한 아스널, 첼시, 리버풀 등 프리미어리그 4개 팀과 FC바르셀로나(스페인), AS로마(이탈리아), 샬케04(독일), 페네르바체(터키)가 올라 있으며 대진 추첨은 오는 14일 열린다.

리버풀 챔스리그 8강행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차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인터밀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리버풀이 후반 18분 토테스의 골로 1-0 승리했다. /연합뉴스

한국 FIFA 랭킹 47위

지난 달보다 6계단 하락

한국 축구가 지난달 동아시아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6계단이나 뚝 떨어졌다.

한국은 FIFA가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3월 국가별 남자축구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613점으로 지난달보다 34점이 깍이면서 랭킹도 41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은 1월30일 당시 45위였던 칠레와 친선 평가전에서 0-1로 패한데 이어 지난달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100위권 밑의 북한과 1-1로 비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축구는 35위에서 36위(702점)로 한 계단 내려갔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선두를 굳게 지켰고, 호주(38위.666점)와 이란(41위.645점)이 뒤를 이었다.

랭킹 1위부터 14위까지는 변동이 없었다. 아르헨티나가 1천556점으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째 선두를 지켰고 이어 브라질(1천459점), 이탈리아(1천387점), 프랑스(1천271점), 독일(1천245점)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獨 축구스타 올리버 칸 9월 은퇴

독일축구의 '거미손' 골키퍼 올리버 칸(39·바이에른 뮌헨·사진)이 9월 현역에서 공식 은퇴한다.

독일축구연맹(DFB)은 9월2일 알리안츠아레나에서 칸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독일대표팀과 뮌헨 경기를 갖는다고 밝혔다고 AFP, dpa 통신이 12일(한국시간) 전했다.

칸은 이에 앞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시즌이 끝난 뒤인 5월 아시아투어에 나서 인도에서 뮌헨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한 세계적 골키퍼 칸은 2006 독일월드컵 이후 이미 '전차군단'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는 은퇴했다.

칸은 1995년 스위스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독일 국가대표로 86경기에 출전했으며 1994년 칼스루헤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뒤 뮌헨에서만 548경기를 뛰었다.

스포츠중계

13일(목)

▲07/08 NBA〈클리블랜드 : 뉴저지〉(08 : 3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 시범경기〈요리우리 : 세이부〉(12 : 50·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SK : 롯데〉(13 : 00·MBC ESP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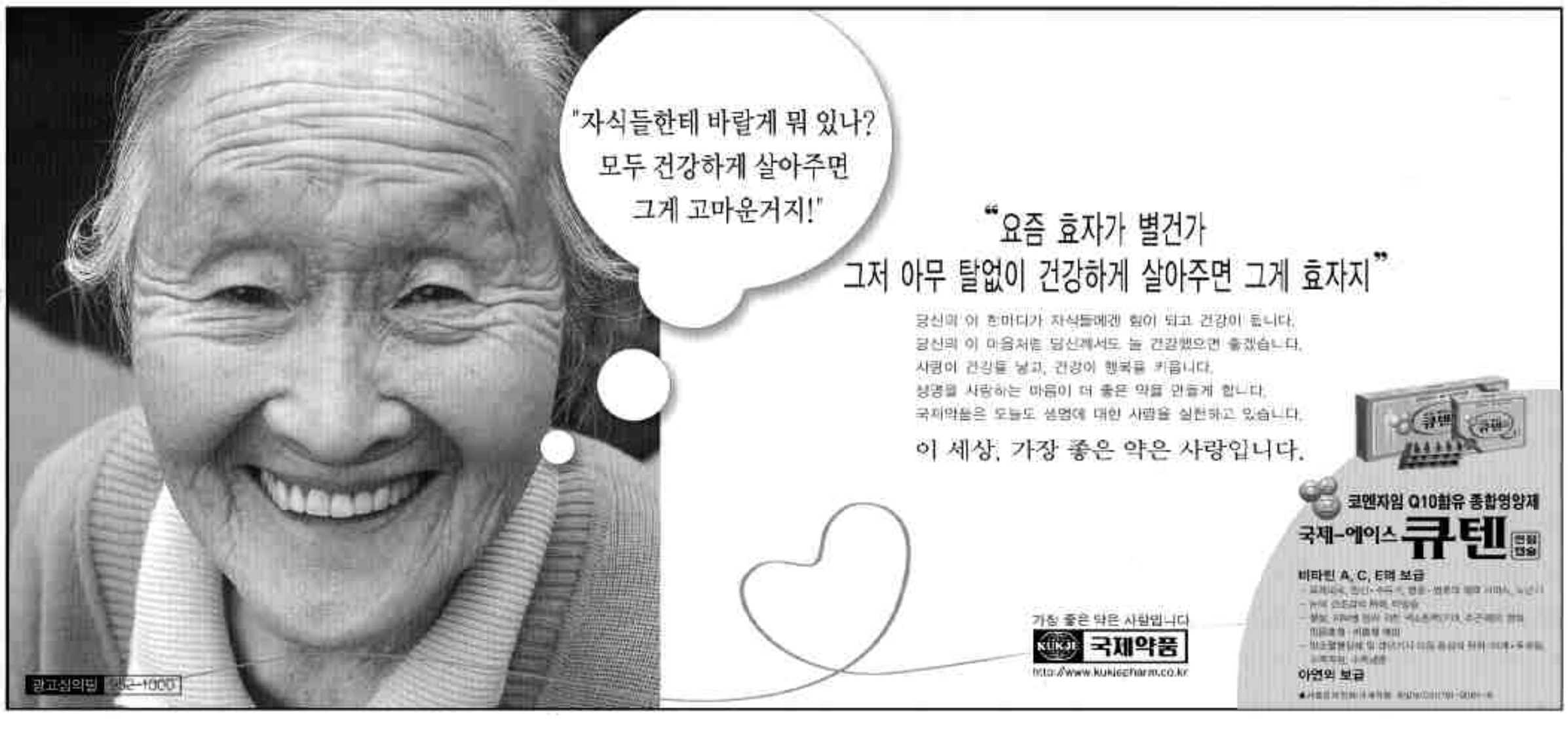
▲코리아오픈 프로페셔널 댄스선수권대회(13 : 50·MBC)

▲2008 유러피언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1R(14 : 00·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차전〈KB국민은행 : 신한〉(16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전자랜드 : 모비스〉(18 : 50·SBS스포츠·XPORTS)

▲베이징올림픽 야구예선〈한국 : 캐나다〉(19 : 20·KBS2)

14일(금)

▲2008 PGA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1R(04 : 00·SBS스포츠·SBS골프)